

전국 행사 잇단 유치 “여수는 바쁘다”

‘문화산업정책워크숍’ ‘농어촌의료서비스 설명회’ 등 수준높은 숙박 인프라 등 지역이미지 개선 절호 기회

6월들어 여수가 전국단위 행사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가장 먼저 ‘제13회 전국문화산업정책워크숍’이 13일 경호동 경도리조트에서 막을 올렸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공무원, 문화콘텐츠 종사자 등 125여명이 참석했다. 문화산업 정책분야에서 전국 최대 규모 행사인 이번 워크숍은 문화콘텐츠의 발전 방향과 지역 문화 자원의 경쟁력 확보를 모색하는 자리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전국 행사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및 도시보건지소 사업 설명회’도 신월동 히든베이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151개 지자체와 도시보건지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157개 지자체 관계자를 초청해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어 19~20일에는 ‘전국 육외광고 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신월동 히든

베이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육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육외광고문화를 선도하는 업계 관계자 마인드 향상 등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형식으로 마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잇따른 전국단위 행사 유치에 따라 지역의 수준높은 숙박 인프라를 외지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세계합창제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프린지공연에 참가한 필리핀 합창단이 13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전통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안행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관상 수상

전남도는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곡성군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지역의 보물, 곡성 섬

진강 기차마을’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17개 전국 시도지역 경제담당 과장 등이 한자리

에 모여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 곡성군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지역의 보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관광자원의 독창적 개발이 절실한

점을 고려해 섬진강변의 폐철로를 활용, 청정 자연환경을 연계한 특색 있는 지역 관광자원 조성사업이다.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를 지정하고 코레일에 기차마을을 위탁 운영하고 장미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세계철 스키트레킹을 개장하는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필수기자 bungy@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박람회 효과...세계 ‘4대미항’ 우뚝

여수시

민선 5기 여수시는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남해안의 중소도시에서 세계 4대 미항으로 등극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박람회 성공개회는 여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계기였다.

104개 참가국, 10개 국제기구, 전국 23개 지자체 등지에서 820만명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았다. 당초 예상한 800만명 목표 관람객을 넘어서면서 박람회 콘텐츠와 성과 등이 BIE와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 효과로 특1급 호텔 등 최고 수준의 숙박 시설이 들어섰으며 KTX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 핵심 교통 인프라도 구축됐다. 광역 교통망을 비롯해 시내 병목구간 도로개설 등으로 접근성과 도로망이 대폭 개선됐다.

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끈 여수시도 행정 성과를 내면서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다.

고급리 지방채 차입선 변경(368



맞춤 투자·건설재정 확보

직원 월령 신뢰회복 총력

억원)과 조기상환(192억원), 통합관리금 조성 지방채 조기상환(125억원)을 통해 89억원의 이자를 절감, 재정건전성을 높였다.

또 공사·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67억원을 절감하고 지방채 목표액(2012년 2013억원)을 초과 달성해 자주재원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교육국제

화특구 지정과 12월 관광국제학교 육특구 우수특구로 선정되면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췄다. 실제 공교육 강화로 인해 중3 학생들의 관외유출이 줄어 지난 2010년 384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225명으로 감소했다.

제조·관광·숙박 분야 등 맞춤형 투자유치로 5조2306억원,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2년 연속 투자유치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다.

하지만 80억원의 공공행정사업이 터지면서 김충석(사진) 시장을 비롯한 여수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

지난해 김 시장과 의회와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김 시장과 집행부의 남은 최대 과제는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박람회 성공개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남해안 관광중심 도시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수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 여자도 ‘찾아가고 싶은 섬’ 선정

안행부, 국비 등 25억 지원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가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됐다.

여수시는 안전행정부 주관 ‘찾아가고 싶은 섬’ 2014년도 공모사업에 ‘여

자도, 가슴 설레이는 생태예술의 섬’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신청한 결과, 현지실사와 PPT보고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20억원 지방비 5억원 등 총 25억원을 투자해 여자도 일원에 다양한 관광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풍부한 섬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해왔던 전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특성화 고교 39억 지원

취업률 40%로 올린다

전북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교육과 지원이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특성화·마이스터 고교의 교육이 취업에 실제 연계되는 ‘취업중심 교육기관’ 역량강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취업역량 강화에 32억5000만원,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에 5억5000만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 등 모두 3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역량 강화는 평균 취업률이 40%를 넘도록 진로 지도, 경력개발 지원, 취업처 발굴과 알선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체 인사업무와 직업상담 경력 많은 취업지원관과 산업체 우수강사 같은 전문인력도 지원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의료원 노사갈등 골 깊어진다

총파업 철회 노조, 정석구 원장 재임 문제로 다시 사측과 충돌

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남원의료원도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총파업을 3개월만에 노사간의 협상결과로 철회한 남원의료원 노조가 정석구 원장의 재임 문제로 사측과 다시 충돌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노조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을 시도하는 정석구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일으킨 홍준표 경남지사는 ‘강성·귀족 노조 정리’를 핑계로 공공의료의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김완주 전북지사도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

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남원의료원 민간 위탁을 검토하는가 하면 정 원장을 앞세워 인건비를 낮추고 진료비를 올리려는 민간병원 형태의 운영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이날 전북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 원장의 재임 반대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남원의료원 노사 갈등의 재점화는 남원의료원 측이 지난 3월 12일 파업 철회 당시 약속한 ‘단체협상 해지 통보 철회’를 어기면서 시작됐다.

그 뒤로 노조는 매일 전북도청 앞

에서 1인 시위(사진)와 함께 남원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정 원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7월로 임기가 끝나는 정 원장이 또다시 재임을 노리고 있다. 노사간의 약속을 종잇장 찢듯 쉽게 어기는 정 원장의 재임은 제2의 전주의료원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나서서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남원의료원의 공공성 회복에 노력하고 정 원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 이달 하순 착공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통합 시청사’가 이달 하순에 착공된다.

시공업체로는 GS건설(주)이 선정됐다. 공동도급사로 지역업체 ㈜창성토건, (유)신영토건이 참여한다. 통합 시청사는 900명가량의 공무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완주군청 옆에 들어설 통합 시청

는 총 7층 규모로 완주군이 부지를, 전주시가 건축비용을 대기로 했다.

총 415억원의 들어 9만6000여㎡의 부지에 시청사 7840㎡, 의회청사 4398㎡, 지하 주차장 3000㎡가 들어선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개발행위 민원 최대한 신속 처리

남원시가 개발행위 민원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를 열어 허가 시간을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녹지·관리·농림·자

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 해당된다.

남원시는 매월 2~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주교도소 ‘희망갤러리’ 눈길 13일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2013 희망갤러리’에서 재소자들이 미술품을 감상하고 있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은 희망갤러리에는 김영태 화가를 비롯해 최수일, 류일선, 이연희씨 등 90여점의 지역 작가 작품이 전시됐다. /연합뉴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관광휴양지로 옥정호 물안개 등 멋진 풍광 인기

정읍시는 구절초 테마공원을 관광 휴양지로 가꾼다고 13일 밝혔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산내면 옥정호 인근의 22만㎡ 부지에 구절초를 심어 만들었다.

가을이면 옥정호의 물안개, 순백의 구절초,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연출하며 이곳에서 열리는 구절초축제는 ‘전국 가을 만만 축제 20선’에 잇따라 뽑히기도 했다.

정읍시는 먼저 공원 진입로 주변의 1만㎡ 부지에 구절초를 추가로 심고 공원 안의 산책로에는 감나무를 식재해 공원의 품격을 높이기도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관광휴양지로 옥정호 물안개 등 멋진 풍광 인기

공원으로 통하는 복면과 태인면, 산외면의 15km 도로에 구절초 화단을 만들고 인근의 하천 부지 7만㎡에는 코스모스와 옥새, 해바라기를 심는다.

인근의 2만㎡ 논에는 유색 벼를 가꿔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공원 안의 쉼터와 주차장, 광장 등의 시설도 새로 손보기로 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언제든 찾아와 걸 수 있는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친환경 고급액비 첫 개발 시연회

친환경 고급액비가 순창에서 개발됐다. 순창군은 지난 11일 비옥토지 연순환농업센터 영농법인과 공동으로 풍산면 삼촌리 들에서 가축분뇨로 만든 고급액비를 어린 벼에 살포하는 시연회를 했다.

신제품 액비에는 유용미생물을 첨가해 작위가 적으며 벼농사에 필요한

각종 미량원소를 함유해 화학비료로 100% 절감토록 했다.

풍산면 미나리 작목반원들은 “미나리 재배에 액비를 사용하면 결과 전보다 잔뿌리 성장이 왕성해 수확 후 추가 비료를 넣지 않아도 되며 생산량도 3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마한 분묘문화 중심지, 고창 봉덕리 고분’ 특별전

고창군은 13일부터 18일까지 고인돌박물관에서 ‘마한 분묘문화의 중심지, 고창 봉덕리 고분’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1호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128점이 선보인다.

2009년 발굴이후 일반인에 첫 선을 보이는 유물에는 국내 출토 유물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금동신발과 칠기로 만든 화살통, 중국제 청자 등이 포함돼 있다.

봉덕리 고분은 마한시대 발굴조사 중 가장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1호분을 비롯해 주변에는 마한 분묘구 계통의 대형 고분이 밀집돼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